

함평군, 금호타이어 6,609억 원 투자 유치... 빛그린산단에 친환경 스마트공장 건립

함평군-전남도-금호타이어 투자협약 체결

전남 함평군이 6,609억 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신공장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형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함평군은 지난 9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도와 금호타이어가 함평 신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의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협약에 따라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원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부지 50만㎡에 총 6,609억 원을 투자해 연간 530만 본 생산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타이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함평 신공장은 자동화·지능형 설비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생산시설로, 금호타이어가 추진 중인 전기차(EV) 및 고성능 제품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효율 향상과 품질 경쟁력 제고는 물론 친환경·저탄소 공정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 신공장은 올해 12월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정련동과 생산동 등 주요 건축공정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8년 1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향후 공장 증설을 통해 광주공장도 완전히 이주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신공장 조성에 따라 협력업체의 동반 입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제조업 집적 효과와 기업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신공장은 함평군이 미래형 제조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장이 안정적으로 완공·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군, 연말 맞아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이벤트 운영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00명 선정해 한우·햄살 등 추가 증정

담양군이 연말을 맞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담양산타의 선물!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담양한우', '담양햄살', '담양특산물'을 비롯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 커피 모바일쿠폰 5천 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350명에게 네이버페이

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제7회 담양산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연말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담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3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천 원권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연계해 12월 31일까지 롯데리아 전용 이벤트 링크를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전원에게 '한우불고기버거 품보 쿠폰' 1매를 제공하는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무안군,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대상' 수상

6개 분야에서 고른 성과... '온기나눔 온데이' 등 특화사업도 인정받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0일 전라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대상 수상했다.

올해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안군은 ▲자원봉사 인프라확대 ▲자원봉사 관리 및 사업 ▲연계협력 활성화 ▲인정보상체계 강화 ▲자원봉사 활동 홍보 ▲특화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 6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상의 영광

을 얻었다.

특히,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기록적 폭우 피해 당시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 준 헌신적인 활동과 따뜻한 연대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특화사업 '온기나눔 온데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주민 모두가 함께 안전으로 지키고 복지로 살피는 복지안전망 운영 부분이 높게 인정되었다.

또한, 이날 다수의 무안군 자원봉사자

들이 기업 및 개인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역량을 높였다.

김산 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안형 통합 자원봉사 모델 구축 및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로 더 따뜻하고 더 희망찬 무안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김치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정

전남 곡성군은 관내 소재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지난 10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김치 50박스를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김치는 입면 지역 내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번 기부는 추운 겨울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영광군, 자동심장충격기(AED)일제 점검

영광군은 12월 4일부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130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의무기관은 물론 자율적으로 설치한 비의무기관까지 모두 포함된다.

최근 AED 설치가 확대되면서 응급장비 유지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영광군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상태,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사용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본 점검은 기관별 현장 방문해서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 명령과 추가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AED가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 간전면 간문초등학교 아나바다 운동으로 나눔 실천

구례군 간문초등학교(교장 최강희)는 지난 12월 9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성금 592,800원을 간전면에 기탁하였다. 이번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방식으로 전달되며, 간전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주도한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고, 교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배우는 동시에,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깨닫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